

F

© (재)서울문화재단

이 책은 아고라 2017 S02 <이런 페미니즘>에서 발표된 글과 현장 토론을 정리해 서울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저작자와 서울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7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

* 일러두기

내용에서 다루어진 프로젝트, 전시, 작품명은 < >으로, 발간물은『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번역된 인명은 AaBb Cc로 통일하였고, 그 외의 표기법을 따른 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발제 원문은 고딕체로, 그 외의 대화는 명조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사회자의 말은 회색으로, 번역된 발제문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대화 내용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아고라 2017 S02 <이런 페미니즘>

Seoul Art Space Seogyo/The Artists Cooperative Group/AGORA 서교예술실험센터/공동운영단/아고라	6
Any Such Feminism 이런 페미니즘	11
Intro 들어가며	12 13
Section 1 :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in Art World 섹션 1 : 예술계 내 성폭력 / 혐오와 마주하기	
Communal Efforts / Sisterhat 공동의 노력 / 언니모자	14 15
The Battle of the Name / BoRyeon Choi 싸움의 이름 / 최보련	22 23
Un-possess Violence / Eugene Mok 폭력에서 벗어나기 / 유진목	32 33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48

Section 2 : Knock, Knock, the Art World, the Unlevel Playing Fields

섹션 2 : 예술계 내 기울어진 운동장 두드리기

MinJi MA / Remain Visible :

The Unlevel Playing Fields in the independent documentary scene 54

마민지 / 사라지지 않기 위해 :

독립 다큐멘터리 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해 55

YoonHa Kim / Hello, I Am a Music Critic, YoonHa Kim 66

김윤하 / 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입니다. 67

SunYoung Choi / Stories removed from “Challenge of A Mother Artist” 74

최선영 / “엄마 예술가의 도전”이라는 말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 75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86

outro 96

마치며 97

서교예술실험센터**Seoul Art Space Seogyo**

2009년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홍대 앞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 중입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예술인들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으며, 특히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신진-유망-기성 예술가'로 이어지는 경력별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시각 분야 지원 거점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eoul Art Space Seogyo first opened to the public in 2009 by remodeling Seogyo-dong community center. We have been operat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arts ecosystem around the Hongdae area since 2013 with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 a culture and arts governance consisting of artists. The Space has been committed to supporting creative, experimental,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activating the network of artists, playing a role as a support hub for visual artists by means of career specific support programs covering 'rising-promising-established artists.'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 Seoul Art Space Seogyo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요구를 다각도로 수용하기 위해 서교예술실험센터와 함께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인입니다.

매년 연말 (11월-12월경) 공모를 통해 6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5기 공동운영단 강정아, 강지윤, 박종일, 봄로야, 임나래, 조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mission of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 is to accommodate the reality and the demands of various aspects in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through planning and managing businesses in collaboration with Seoul Art Space Seogyo. We accept application in November and December annually to select 6 creators for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 and our current 2017 5th artists cooperative group is consisting of Jung ah Kang, JiYun Kang, Jongll Park, Roya Bom, NaRe Lim, and Jomal.

아고라 AGORA

아고라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관련한 재교육 및 동료 예술가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의 아고라는 수직 | 일방적 교육이 아닌 수평 — 상호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학습이 아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시즌별로 세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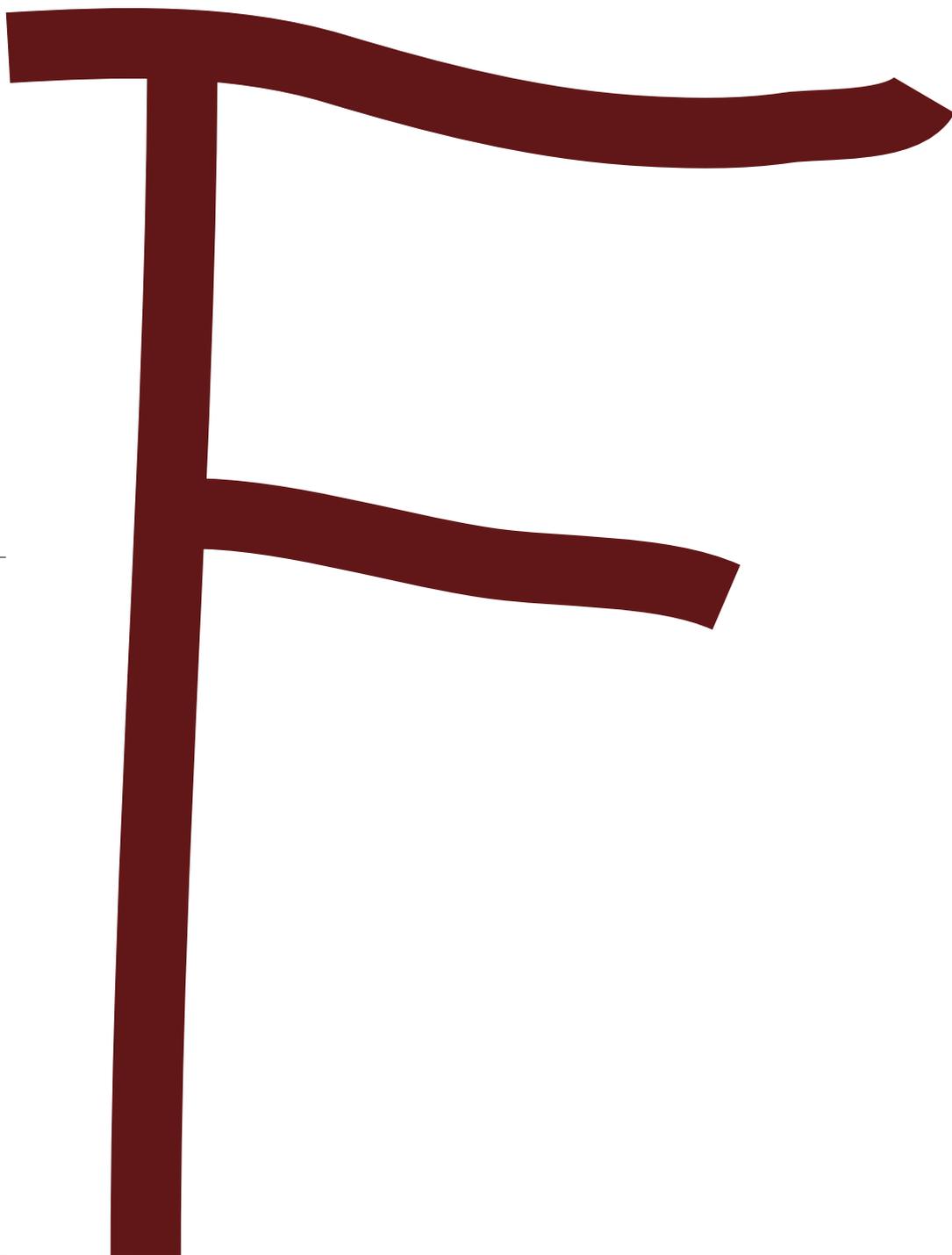
AGORA is an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to connect young artis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stic practice, dialogue, and education. 2017 AGORA is committed to provide a space for horizontal dialogues, a reciprocal communication avoiding a compliance based approach. Instead of adopting external methodologies for growth, we dedicate ourselves to harness the power of synergy within the group. We are dedicated to 3 programs for each season.

활동 기간 10년 전후의 동력이 소진된 시각예술가와 비평가·기획자의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지원 프로그램 <고무동력기記>, 예술계 내 성폭력/혐오와 불평등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페미니즘>, 그리고 작업을 설득력 있게 글로 풀어내는 예술가의 글쓰기 방법론 <(진짜_최종)최종_글쓰기.txt>가 진행되었습니다.

<Rubber Drive> is a supporting program for self-development of visual artists with around 10 years of professional career (who may have exhausted their enthusiasm,) along with critics and planners.

<The Final_Writing.txt> is a class for artists to learn various methods to assist their writings.

<Any Such Feminism> is a project devised to have an open discussion on sexual violence in the art scene.



이런 페미니즘 Any Such Feminism

〈이런 페미니즘〉은 예술계 내 만연해 있는 성폭력/혐오와 구조적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일상에 만연하고 비일비재한 일들이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닌 차별이자 폭력임을 인지하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해 풀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이론·정책·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에 집중하여,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개인적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시각예술, 문학, 대중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발표자가 말하고, 사전신청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듣고, 다같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고 듣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잦아질수록 우리의 세계는 서로를 지지하며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Any Such Feminism〉 was devised to have the open discussion on sexual violence and structurally unsound. The objective of dialogue is to purvey the everyday discrimination and violence encountered and to advocate the feminist perspective solutions. Our discussions centered on the scheme of preventing victims to breed, neither I nor you; we focused on personal experience and individual solution instead of theory, policy, or any controversial argument. Six presenters were invited from Visual Arts, Literature, Music, and other fields and participants joined the open discussion via registration in advance and on the spot. Speak together and listen together, the more conversations we have with each other, the better our world will be.

**JiYun
Kang**

moderator

Hello, my name is JiYun Kang and I am a member of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 from Seoul Art Space Seogyo.

〈Any Such Feminism〉 was planned as the 2nd project for our educational program called 〈AGORA〉. As many of you are aware of the sexual violence case that surfaced out of nowhere in the art industry via SNS hashtag last year, we now acknowledge that it is not any one person's problem, but ours. Any actions exercised or words used could have been brutal violence to someone. 〈Any Such Feminism〉, as a reciprocal educational program, was devised to make a place to share and discuss stories alike.

We have invited participants from visual arts, music, literature, film, and other fields to hear their various approaches to this matter. Along with the presenters at the round table, we expect to hear many experiences from the audiences as well.

There will be 3 presenters for each section,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in Art World*, and *Knock, Knock, the Art World, the Unlevel Playing Fields*. The artists from various areas will share with us what is happening in their fields. We will start with Sisterhat first.

2017. 07. 21

6 p.m.

안녕하세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강지윤입니다.

강지윤

사회자

〈이런 페미니즘〉은 공동운영단의 교육 프로그램인 〈아고라〉의 두 번째 시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겠지만, 지난해부터 SNS 해시태그를 시작으로 이슈가 된 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수면 아래 있던 이야기들이 내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사소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페미니즘〉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감과 이야기를 나누며 부족함을 채워가는 상호학습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시각, 음악, 문학, 영화 등 여러 분야의 참여자를 모시고 창작자로서 이 이슈에 대해 각자의 언어와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를 포함하여, 자리를 채워주신 많은 분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계 내 성폭력 혐오와 마주하기’, ‘예술계 내 기울어진 운동장 두드리기’라는 두 섹션에 모두 여섯 분이 발제를 해 주십니다. 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양한 장르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번째로 언니모자의 발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Section 1 :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in Art World

/ Communal Efforts

Sisterhat

Visual
Artists

Hello, we are a feminist visual arts community, Sisterhat. We are pleased to be here to talk about the sexual violence in the art world.

As a feminist community, we are interested in social phenomenon such as authority and its direct consequences. Any violent occurrences made on the basis of sex/gender distinction is our concern. When the members of the judiciaries no longer grasp the seriousness of the sexual assault cases and choose to suspend the sentences of the offenders, we confess our present days nonviable only on laws and policies. Our perception on sexual violence must be changed. Sisterhat focuses on the actual weight of the authority; how individuals correspond to it, what the ramifications are, and most importantly, the ways in which we can bring changes.

Sisterhat ☹

Sisterhat is a community of feminist visual artists. We stem from the two questions: How can we act on our feminist beliefs inside the art world? How can we, as an artist, integrate the very perspective into our practice? It is our highest priority to commit to these tasks along the side of both life and art.

섹션 1 : 예술계 내 성폭력 / 혐오와 마주하기

/ 공동의 노력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 언니모자입니다.

‘예술계 내 성폭력/혐오와 마주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로서 사회적인 현상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권력과 그 직접적인 권력의 행사, 즉 폭력이 물리적 성과 사회적 성에 얽혀 있는 상황을 흥미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작금의 현실, 예를 들어 법조계 인물이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행유예를 구가하는 등의 경우들을 접하면서, 개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모자는 권력이라는 현실적인 힘에 대해서, 문화적인 개개인의 인식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낳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언니모자

시각
예술가

○ 언니모자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작업자들이 모인 시각예술공동체입니다. 언니모자는 어떻게 하면 예술의 영역 안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작업에서 여성주의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삶과 예술이라는 양면성 속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을 병행한다는 것이 저희에게 무척 중요한 지점입니다.

One of our 2016 projects <Common Violence> aimed at shifting this power structure between perpetrator and survivor. We asked the sexual assault survivors for the description of their assailants in writing to visually objectify them. Withdrawing the attention from the victims to the perpetrators signify placing the rightful accountability for their hideous crime to them entirely. Stigmatizing victims, “She dressed inappropriately,” “She was drunk,” and “It was consensual,” etc., should not be persuasive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our project was to change this very victim-blame climate in our society. Perpetrators are never anyone special or unimaginable, but ordinary. They are neither isolated nor behind the scene whereas, the victims’ voices go unheard or forgotten as quickly as possible. The exhibition and the publication project reflect on this reality - the survivors and the artists tried to show visual portrayal of the concealed truth, the *Common Violence*.

We guess we are invited here because of our discourse from December last year, <Speak Out: Sexual Violence in Art World.> I will describe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In October 2016, SNS has gathered our attention to #SexualViolenceInArtWorld hashtag, opening the discussion on different forms of sexual violence in the art world. The incident at Ilmin Museum was especially problematized; the museum’s former curator Mr. Ham’s misconduct, taking advantage of his authority over their exhibition planning, was widely criticized. The discourse was round up with the prediction that there would be more similar cases happening and has already happened.

One of our community members Maekju shared us her experience working at the center for sexual violence and it tells us that with one courageous victim seeking redress, came ten people feeling disturbed.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초에 진행했던 작업, <평범한 폭력> 또한 그러한 권력과, 권력의 위치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범한 폭력>은 성폭력 생존자들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묘사가 담긴 글을 넘겨받아, 가해자들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사건의 책임을 생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생존자가 흔히 듣게 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혹은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남성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의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존자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특수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연대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데 비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들은 지워지기 쉬운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비춰 보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폭력’이 생존자와 작가들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을, 전시와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내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12월 진행했던 <미술계 내 성폭력 말하기 모임> 때문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려보면, 2016년 10월경 #미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미술계 내 성폭력의 여러 유형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 중 당시 일민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었던 함영준 큐레이터 건은 전시 기획과 관련되어 작가에게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시되었고,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라 말하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맥주가 성폭력 상담소에서의 업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용기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불편을 느낀

Approximately, only 10% of sexual assault cases are reported to authorities, not to mention that the number is rounded up. Sexual violence is heavily under-reported in Korea even though it does not require any formal complaint from the victim himself/herself for prosecution since 2013. Any form of sexual violence witnessed can be reported by anyone.

〈Speak Out: Sexual Violence in Art World〉invited those willing to speak up. Carried out in a private location,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was kept completely secret and the published names online were all anonymous.

Sisterhat advocates the very people who are at the core of this problem, bringing their voices to the table because we understand how difficult it is to let their opinions heard when perpetrator's pretext is so strong in Korean society. We support the survivors' bravery to step up to share their stories.

What we have learnt from the project, 〈Common Violence〉 and 〈Speak Out: Sexual Violence in Art World〉, is that perpetrator's actions and behaviors are typical. In contrast, every single victim's lives are affected in ways that cannot be fathomable. There is neither time table nor blueprint for healing; survivors need time to face the incident and longer time to process it and respond. Many lose their voices and remain numb. Perpetrators worm their way back into the victims' lives in the name of power, relationship, and situation, pressing and demanding them to understand, compromise, accept, and self-blame for what happened. This causes the victims to set themselves in isolation apart from others. Even after somehow finding a way out of such struggle, victims find themselves taking the second battering of people condemning them. They are surrounded by the people who

사람은 열 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신고율은 아무리 높고 잡힌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하더라도 10% 가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도 성폭력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술계 내 성폭력 말하기 모임〉은,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비공개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름을 익명 처리한 기록물을 웹상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언니모자는 미술계 내 성폭력의 공론화에서 공론화를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내놓은 분들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가해자의 논리가 굉장히 강한,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평범한 폭력〉과 〈미술계 내 성폭력 말하기 모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가해자들의 행동과 그 양식은 언제나 진부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생존자들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가해 사실을 명백히 규정하고 자각하기까지는 대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에 대해 발화하고 대응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입에도 올리지 못한 채 가슴에 묻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가해자들은 언제나 권력이나 관계, 상황을 빌미로 생존자들에게 파고듭니다. 그것은 생존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해석하려 하고, 타협하려 하고, 수용하려 하다가 자책의 감옥에 갇히는 시기를 거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과정을 간신히 극복하고 나면, 다시 2차 가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에서는 사소한 일로 치부해놓고 뒤에서는 소문을 퍼트리는 주변인들. 말도 되지 않는 인과 관계를 앞세우며 생존자에게 책임을 묻는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소극적이었던 적극적이었던, 생존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도로 비방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생

act like it's not a big deal but spread rumors behind, those holding the victim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cause of the assault, and the ones default to questioning the victim's response, whether it be passive or aggressive. Then, they meet certain *powerful people* trying to silence their voice, *the noise*, in favor of the community. Such culture of victim-blaming place the victims on the extended track of assault. The assault may be simple and it is not hard to guess the intentions as well; it is a mere act of lustful desire imposed on the physically inferior, just because they can. However, the damage done is not as simple. The loss of inner chaos drastically alters victim, causing social and public dysfunction. It disables them from continuing with their lives as before.

Eradicating sexual violence is important but what is direr and in need of change is the rape culture and the bad social conditioning feeding it. Although there still is the risk of re-traumatization for the victims, social network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through this project making the sexual violence in the art world known and forming a public opinion. The advantag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is in the ability to keep things anonymous. Above all, it gave an opportunity for everyone participating to re-think the sexual violence in our society. The wave of this phenomena was possible because many have fought for and offered their views in hopes of making a change. It would have been a senseless act of retaliation to chase after the perpetrators to directly punish them. Rather, we chose to go after the perceptual transformation through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Tackling the violence requires not only survivors but the community. We need *listeners* and their actions.

Openly speaking and visualizing the power structure of patriarchy

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음’을 없애버리는 소위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죠. 폭력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들은 생존자들에게 이중고, 삼중고로 다가옵니다. 가해는 단순할지 모릅니다. 그 동기도, 의도도 변하지요. 단지 자신의 욕구를 상대적인 약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존자의 내면, 생존자를 둘러싼 인간적 관계들, 생존자가 활동하는 사회적 범위 등 여러 층위에 걸쳐져 있죠.

저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폭력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에 대해 반응하는 사회적 관계망들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술계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지고 비난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데는 소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생존자들에게 보탬이 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광범위한 2차 가해를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생존자가 자신을 익명으로 지킬 수 있었던 점이 소셜 네트워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지의 뜻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 않고 함께 싸우려 하는 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든 가해자를 찾아가 그를 물리적으로 응징하기보다,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을 기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존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막연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생존자가 속한 세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활동들을 통해 저희는 계속해서 말하기와 시각화를 통하여 강고한 가부장제 권력의 배치를 재구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생존자의 말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말하기의 기회,

embedded in our society has been the focus of our practice so far. It is necessary to afford the victims more spaces for dialogue, not only for the maturation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olicy but also for our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more diverse projects and art practices, Sisterhat wishes to create various platforms where all our voices can be heard. With more *listeners*, more actions are possible.

**JiYun
Kang**

moderator

We understand the efforts and pursuit of Sisterhat on the issues of sexual violence from hearing their projects and statement. We will discuss at the round tab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 industry, what other attempts are being made by the community beyond SNS to deal with violence. Moreover, the words that are frowned upon such as, *vagina* and the words that are vanishing link us to our next author, BoRyeon Choi. We will continue with her statement, *The Battle of the Name*.

**Bo
-Ryeon
Choi**

Visual
Artist

Hello, my name is BoRyeon Choi and I will be talking about the power of naming. The topic may sound quite abstract but it is about granting of names to hierarchical groups and the power of that identification. Moreover, I would like to share some things I learned from various meetings and a kind of exposure projects that which I have participated in or organized.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행정적 제도로써도 그러하지만,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언니모자는 앞으로도 활동과 예술을 넘나들며 다양한 말하기-듣기의 장을 펼쳐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듣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과거 작업과 발제문을 통해 언니모자가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할지라도,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이나 연대의 노력이 SNS를 넘어 그리고 예술계 내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구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는 발제 후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보지’와 같이 제대로 호명될 수 없는 말들, 지워지는 말들에 대한 것은 최보련 작가의 두 번째 발제 ‘싸움의 이름’과도 연결될 듯합니다. 두 번째 발제 바로 이어 들겠습니다.

강지윤

사회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보련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위계적 권력집단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을 호명하는 이름과 그 이름의 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지난 몇 년간 참여하거나 조직했던 일종의 고발형 프로젝트와 모임에서 느꼈던 것들을 종합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보련

시각
예술가

/ The Battle of the Name

Strategically made

There are shortcomings in establishing a certain organization to be closed cartel. Such foundation either makes individuals dissociated of established group or enforced ideology the anomaly, or better yet, considers them ill-suited. There was a publicized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directory database of Korean art industry. This project became the blunt evidence of the notion, *contagious consumption*, identifying the cartel's firm control over the art world in Korea. A curator made a sarcastic remark on the project, "I would spend time making more work instead of glossing on the art world just because you can't get near it." Others criticized the method of database visualization as an old-fashion media art imitation and the data being inaccurate. More provocative feedbacks sparked due to the overweening inclusion of creators and planners in the palm of power dynamics of the cartel.

This example is a testimony to the struggle of labeling the concealed and the diffused, multiple dimension of power in our society, *the monopolistic gesellschaft*. It becomes a problem when an individual, possibly belonging to a certain category, cannot shape

BoRyeon Choi ☺

She lives and works in Seoul. Her videos focus on various types of narrative strategies that allows for linear configuration of past and the present that make up the outer appearance of the truth.

/ 싸움의 이름

전략적 호명

특정 집단 일반을 폐쇄적 카르텔로 설정하는 것의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한 설정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거나 예외로 취급한다. 예컨대 몇 년 전 한국 예술계 인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은연중에, 그러나 결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미술계가 공고한 카르텔 내부의 ‘감염적 소비’에 의해 작동함을 지적한다. 한 큐레이터는 상기 프로젝트를 두고 ‘자기가 못 먹는 감이라고 미술계를 카르텔로 호도할 시간에 작업이나 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초기 미디어 아트의 아류형이라든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등의 실질적 피드백들이 있었으나, 많은 경우 창작자 및 기획자를 권력 카르텔의 내부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상정하는 패기가 흥미를 유발하는 주 요소인 듯했다.

위의 사례는 다수의 개인이 다수의 집합 내외부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긴밀하고도 산발적인 비가시적 관계망들을 ‘독점적 이익집단’으로 묶어 호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어떠한 종류의 집합에 포함되어있을 확률이 높은 발화자 자신의 관점 수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적이다. 자신은 정확히 기정 카테고

○ 최보련

서울에 거주하며 영상을 제작한다. 진실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의 과거와 현재를 선형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사적 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다.

their own beliefs and sense of self. Am I outside of the mechanism, the predetermined categories? The question does not need a generalized answer that comes into play only to make the question understandable. Socially engaged art reflecting the context of such dynamics of power - inclusion and exclusion - allows artistic intervention, giving more freedom to identify and visualize the invisible power structure that is tucked away from reality.

We often witness revulsion against the various repressing assumptions throughout the process. *HanNam* is regarded as a derogatory for Korean men in general. For women in our society having to deal with the real-life issues of microaggression, rape, and murder, *HanNam-ism* takes the vote against “I am a unique individual not belonging to any collective categories and I will not be generalized as such,” which can only mean claiming their territory on “All men are not the same.” Any group or organization is tagged with labels and misapprehension. However, even if it may not be accurate in all situations, generaliz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revealing the current state of social divisions.

Incorrect Language

On the contrary then, is it feasible to explain oneself and his or her situation with the language that is not of their own but borrowed? Revisiting the trauma is hard enough and they already recognize that there is no substantiating vocabulary to elucidate *the matter* at hand. Even if there were, it could not be exact. They are also aware that once their story is censored on the *victim-worthy* trajectory, it will be met with run-with-the-pack conclusion of the public, on top of every possible presumptions that follow. *A victim-focused approach*

리, 달한 메커니즘의 바깥에 있는가? 문제적 상황을 이해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는 일반론의 언어가 늘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예술에 있어서 행동주의적 작업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포섭하고 배제하는, 기실 정확히 가시화되기 불가능한 권력에 관한 가설을 비교적 자유롭게 고안하고 그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전제되는 여러 가지 억압 가설에 대한 반감 또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한남’을 한국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하나의 예이다. ‘나는 집단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개인이며, 부정적 속성을 포함하는 일반론으로 포섭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에서부터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고안해낼 수밖에 없었던 ‘한남론’이라는 일종의 가설 앞에서, ‘모든 남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며 체면 세우기의 방식으로 제 존재를 드러내고야 만다. 물론 집단을 설명하는 사유와 언어는 자주 오류로 가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론은 많은 경우 나와 내 분과의 사람들이 속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정확하지만 필요한 언어이다.

틀린 언어

그렇다면 역으로, 자신이 고안하지 않은 언어를 외피로 삼아,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 피해 사실을 복기하는 이들은 대부분 과거 특정 시점의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기존재하는 언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다움’의 수식 어법 내지는 검열 기체에 반하는 순간 쉽사리 오만 가지 추정이 끼어들고,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이 상징적 심판관을 자처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

is a means to overthrow such deceptive impulse. It begins with the effort to build complete rapport and trust with survivors before questioning their locution and the authenticity and seriousness of the case. It is only natural to raise skepticism on the accuracy of the stories of course. However, sidestepping the issue as a bystander and simply condemning the fallacy and the ideologies presiding over it are both an act of retreat. Moreo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victim-focused approach can be distorted and manipulated to rationalize a standpoint such as “Men too can be sexually assaulted by women.” A 2015 film *Female War*, adapted from a comic book by InKwon Park, delivers *a man* threatened and conned with a sex video. Consider it just another grifter movie but the director is subtly normalizing the culture of hidden camera that which is already a mark of a crime in Korea. His intention is to downplay voyeurism as a criminal act, trivializing the assault to uphold men’s predominance over women. Hence, what the film emphasizes is the reality that men, just like women, could be the victim of stalking and subject to mental/ financial violation.

A person properly educated and well-informed of the life of weakling, living amid able-bodied, adult males, would easily work out if a victim-impact statement were a joke; a claim deprived of dominance hierarchy and the power relations cannot be made. If so, how would an individual and a group of people, not as a victim, be able to conceive of the story and in what way? Last year’s #SexualViolenceInArtWorld hashtag brought on feminist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promoting forward-thinking alternatives. While distinctive measures for current agendas and problems were made, the actual outcome and the limitations produced go beyond the

으로써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발화의 의도 및 신빙성을 의심하고,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의 언사를 제 1의 진실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의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중을 따지는 일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나는 당사자가 아닌 관객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재하는 언어가 이미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으며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말을 엮을 수 없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은 일종의 도피다. 일례로 피해자 중심주의는 ‘남성도 잠재적으로는 (여성에 의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위와 같은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 만화가 박인권의 동명 만화를 각색하여 제작된 2015년 영화 <여자전쟁>에는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을 겁박하여 금융사기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저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감독은 한국 사회에서 몰래 카메라라는 범죄적 이미지 수용 방식의 전제가 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획득 기제로서의 범죄적 관음 문화라는 맥락을 소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당 영화는 남성도 여성처럼 몰래 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자산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장애인 성인남성 집단의 여집합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약자의 입지를, 적정한 훈육이나 특정 계기를 통해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현실의 공고한 권력 및 위계의 관계망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피해 진술이 일종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아닌 관련인, 혹은 관객으로서 개인과 집단은 발화자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예술계_내_성폭력 해쉬태그를 필두로 했던 여성주의적 결집이 어떤 대안적 연대 방식을 낳았고, 이들이 기존의 액티비즘과 어떻게 차별화되었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본 발표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boundary of this discussion. There however is a certain sense of *déjà vu*, partly coming from *the hearing methodology* and *performance methodology*. These are the questions below.

Sustaining Illusion

Where does the force come from when an individual or a group work toward resolving an urgent agenda? What is required to sustain the drive? Bring to the fore the relay of questions pertinent to the first? One thing for sure is that voluntary association of an individual may not last, unless he or she is a persistent warrior. As for creator bridging their work to public means seems to struggle with the limitation of support. The same goes for social groups pursuing the benefit of the public sphere or confronting the social absurdities. It is also the case when you are a part of heterogeneous groups, such as youth, women, gender specific, etc., fighting for the same means.

One of the deep-rooted grounds for the loss of the force is the demand for social cohesion, but that is not all; creators, from their experience, can deduce that the sustaining force is not the corresponding motives but the discontinuous and unpredictable inception and the impacts that follow. Such concept to be documented while respecting socially acceptable criteria remains crucially important, but it is only viable within the continuum of reconstruction of past and the present of subjective self. It means, whatever underpins our persistence of the conditions should be comprehended firsthand. Moreover, since individuals share a co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group they partake in, they tend to look for the text of others to draw them into collective action, by which this could be accomplished, to reaffirm their stance.

‘듣기 방식’과 ‘행위 방식’과 관련하여 느꼈던 모종의 기시감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된다.

지속이라는 환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특정 사안에 관해 개인 혹은 단체로서 연대하고자 할 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또 그 동력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가령 한 가지 사안이 해결되고 나면, 꾸준히 유사한 다른 사안들을 모색하고 그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가능한가? 확실한 것은, 투사가 아닌 이상, 개인 활동의 동력은 언젠가 고갈되기 마련이다. 특히 창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공익적 활동과 결부시키는 수행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조리에 대항하거나 공익적 요구를 관철하는 연대체 단위로서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사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청년, 여성, 성 소수자 등의 다양한 정체성의 집합에 속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속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려운 일이다.

지속이 어려운 이유에는 몇 가지 고질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로 나와 내가 속한 단체의 소명이 모종의 동일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특히 창작자라면 지속되는 것은 단일 혹은 상호 유사한 동기가 아니라, 불연속적이고 비일관적인 계기와 그로 인한 반응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 지속이 유효한 방식으로 기록 및 기억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인정기제에 포섭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행위자 자신의 주관성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의 연속 가운데 유효할 뿐이다. 즉 자신에게 납득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둘은 상호의존적이기에, 자신의 삶 속에 가짜이지 않은 경험으로서의 투쟁이 기입되고 회상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어떤 투사는 이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모임을 꾸리고 운영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스스로 납득

Some of them organize and manage such union only to acquire the text. Whether it be to involve in activism or pursue self-development; the validity of their commitment ultimately comes from the essentials that make up their lives. Furthermore, achieving a political objective, compared to engaging in a common battle, takes a huge amount of time and sophisticated effort. As stated above, the social acceptance and reaffirmation has reciprocal relationship. What you need is *the name* - to be able to articulate who you are and what you are willing to fight for - and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trinsic motivation.

JiYun Kang

moderator

The final statement of BoRyeon Choi was *Sustaining Illusion*. The statement allows us to think more about until when will we be on the lookout for the sexual violence problems residing in the art world and where to look for the source of way out.

Now, we will further discuss this sustaining force we are looking for and other methodologies of naming/labeling.

The last author of the first section presentations will be a poet, Eugene Mok.

Eugene Mok

Poet

After the invitation to 〈Any Such Feminism〉, I sat in front of my computer and realized that I have never shared my thoughts on this topic in public. I could not bring myself to write anything for a while. I must admit that it was a struggle to forge into words the questions and sentiment and the efforts I have put forth on this

가능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액티비즘이건 자기 계발이건, 투쟁의 이슈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더구나 창작을 통한 정치적 발언은 그것이 모종의 정교한 가공 과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선 일반적인 투쟁 운동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절한 형태의 사회적 인정과 행위자 스스로의 확신은 일종의 되먹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가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적 동기보다, 설사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호명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먼저 필요한 것일는지 모른다.

최보련 작가의 발제문 마지막 소제목이 ‘지속이라는 환상’인데요, 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긴장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이 동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이라는 동력을 어디서 가져올지, 말씀해주신 호명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발제자, 유진목 시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페미니즘〉 참여를 제안 받은 뒤 발제문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아무 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적으로 혼자, 정리되지 않은 채 들던 의문들이나 궁금증과 감정들 그리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들을 문자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

강지윤

사회자

유진목

시인

matter alone.

It was difficult to criticize something I had mixed feelings for and therefore resulted in somewhat open-ended statement. I hope to fill in the gaps through the discussion panel even though I am not sure how articulate I can be regarding the matter.

Around mid-May last year, I published my book, one chapter of love , and 4 or 5 months later, #SexualViolenceInLiteraryWorld hashtags were all over SNS. It was quite a shock to find out that the person involved in the issue was someone I had attended school with for over 10 years. It was only natural for me to pay attention. I live in Jeju island, physically far from having any discussion with people so, I could only observe the responses from SNS and composed a short 140 words statement.

Still, I was never skeptical about the veracity of the story spreading because the person accused was my senior classmate from college 17 years ago. If you were to witness the exact same incident that which had occurred to you 17 years prior to that, you would not have any doubt. It was not a matter of true or false even as the assaulter fought back, pleading innocent. Rather,

Eugene Mok ☉

She debuted in 2016 with her poetry book *one chapter of love*. She is also the author of *Gangneung Haslla Vladivostok*. She writes and makes films at MONGNYEONSA.

eugenemok.vimeo.com

습니다.

내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제문 쓰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여백이 많은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비어 있는 여백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며 채워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이런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중순쯤에 책이 출간되며 등단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등단해서 4-5달 정도 흘렀을 때 SNS에서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발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화를 통해 지목된 지목인이 십 수 년 전에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가깝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시할 수 있는 건 SNS상의, 140여 자의 짧은 문장의 발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목된 사람은 17년 전, 제가 스무 살 때의 대학 선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 SNS에서 똑같은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이죠. 가해자가 아무리 진실을 밝히겠다

○ 유진목

2016년 시집 『연애의 책』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강릉 하슬라 블라디보스토크』, 『연애의 책』이 있다. ‘목년사’에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쓴다.

eugenemok.vimeo.com

my biggest concern was the well-being of the person who uncovered the incident to SNS because he or she is going to be subject to harm. Long time ago, I myself and my classmates regretted reaching out for help because it did not end well. We thought to ourselves that we should have stayed quiet about the incident.

Perpetrators do not think of the consequences of their heinous actions as long as no one finds out. This is why they have the audacity to file a lawsuit for defamation, as it happened after the SNS hashtag incident broke out. The trauma and the suffering the victim goes through is the least importance to them, hence they devout preventing their own reputation from getting tarnished.

“Everything will be alright because you’re not alone,” “We will all be on your side fighting for you,” “We will find a way for your safety,” these encouraging words do help but the threat of drawn-out proceedings of defamation lawsuit that may not end in their favor forces them to be cautious. The victim might end up getting sued and re-traumatized; the burden of proof is always on the victim.

Unfortunately, it is the numbing truth that we just cannot speak of our own experience even on SNS. How can we change this situation? This insoluble question has not been answered yet, nevertheless, we must not stop asking the question because the question will direct us to the trail toward the answer.

The word *unveil* is often used in my statement as I am using it now but what it translates from is the word

며 계속해서 결백을 강조해도 저에게는 이것이 전혀 진실게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피해 사실을 SNS상에 공적으로 발화한 사람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은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겪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나 학우들이나 그 일을 십 수 년 전에 겪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혼자만 알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을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더 큰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한 일들을 남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SNS 해시태그 운동 이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일들이 그런 이유겠죠. 남이 모르면 괜찮고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가해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것에만 주력을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다같이 연대할 것이고 목소리를 낼 것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안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주변의 목소리가 힘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발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뚜렷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고소당하거나 고스란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판단에 의해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SNS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식적으로 발언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 후에도, 누군가가 뚜렷한 답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질문만 남고 답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도 멈춘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찾

expose, which is more commonly used on SNS. Because the word *expose* has the nuance of revealing something one must not, to me it sounds like the language of perpetrator. Surely there are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same incident, but those in the same boat as the one exposing the incident will identify with it, thinking to themselves “I am not the only one.” Consequently,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the truth of the matter. Nonetheless, the accused always say that they will get to the bottom of the truth.

It is inevitable for victims/survivors to feel fear when they hear “Truth will be uncovered,” or “The law will decide.” Strangers asking, “Is it true?” “Did that really happen?” and having to reply “Yes” must be a battle itself for the victims; assaulters try to manipulate this situation as well. While assaulters keep talking about repairing their reputation with the truth, all victims want is to move on and take back the control of their lives. The truth is already given.

I use the phrase life restoration a lot in my statement. When others aspire for their future, victims long for themselves in the past, before what happened. People, telling them to forget about it and that it was not a big deal, do not realize the extent of how it affects them; the distress inflicted is extremely traumatic and looms over their entire life. I wrote some thoughts stemming from that very distress in my statement.

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길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문에도 썼고 지금도 계속 ‘발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SNS 등에서 보통은 ‘폭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폭로는 가해자의 언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폭로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버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겪은 사람도 많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 ‘아, 나만 겪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공동의 경험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가해 지목자는 항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겠다, 법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질문 자체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가해자는 이용하겠죠. 가해자는 어쨌든 진실을 찾아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실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삶의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폭력을 당한 사람은 피해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잊으라고만 하고 별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폭력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지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제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 Un-possess Violence

Since the storm, they had barely slept, surviving on catnaps, bottled water, and rumors.

- Sheri Fink, *Five Days at Memoria*

1.

I plan to unveil publicly the very questions only possible to me privately. The violence I endured, was gender-specific in such a way to suppress and subordinate the weakling.

2.

What the violence defined "I" as a subject was *woman*, and woman only.

3.

The violence, the harm done upon me, wielded its power only when it was met with *woman*. It was not a ridicule of inability, a pity on absence of the materialistic needs, or a criticism on a mistake made. What the violence targeted was my gender, *woman*.

4.

I am a woman and all the questions will be unveiled as a woman.

5.

Can I escape from violence? Is violence inescapable? A silence came after these questions. Can I proclaim it? Can you? I can escape from violence. You can escape from violence. We can escape from violence. Can we?

/ 폭력에서 벗어나기

폭풍이 닥친 이후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잤고, 그저 잠깐씩 눈을 붙이고,
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헛소문을 건디면서 버텨야만 했다.

- 세리 핑크, 『재난, 그 이후』

1.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나에게 사적으로만 가능했던 질문을 수집해
공적으로 발화해볼 생각이다. 내가 겪은 폭력은 기묘한 방식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그 중 취약한 쪽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2.

‘나’라는 주체가 폭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놀랍게도 언제나 내가 ‘여성’
이라는 사실이었다.

3.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이라는 사실과 만날 때 힘을 얻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테면 부족한 재능을 조롱하거나 물질적 빈곤에 수치심을 가
하거나 마땅한 실수를 찾아내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나를 겨냥한 폭
력이 집중하는 것은 나의 성별 즉 ‘여성’이었다.

4.

나는 여성이고, 앞으로 던질 모든 질문은 여성으로서 발화하는 것이다.

5.

나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폭력은 벗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이 질문 뒤에는 얼마간의 침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당장 선언
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 나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
습니다. 당신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가?

6.

Between the question and the silence is life restoration. Escaping from violence meant restoring the part of life that was destroyed, taken away from my own will. Violence may be escapable and inescapable, and so is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of life; it may or may not work. This uncertain process arouses a feeling of hopelessness. Violence is truly superficial for it is deprived of purpose but life is desperate because it must be restored.

7.

The restoration of life entails separating violence from the life itself. The division between the process of escaping violence and the process of restor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despair and pessimistic views from sabotaging the life. Countless attempt at getting over the assault is obliterated by failures and thus, life gets discouraged. However, violence does not falter. Violence is inherently cynical and ruthless ergo makes the effort to move on seemingly futile act of desperation. Therefore, the life before the violence needs to be set apart from the life after it; the past life needs to be preserved and revisited to imagine the life after the recovery from violence even if you are still in agony now.

8.

What has happened can be the single most devastating event in a person's life. There is nothing else that the person possesses to write their story but the pain.

9.

In most cases, the violence can only be settled by others' judgment. "They are the assailant" can be established but "I am

6.

질문과 침묵이 반복되는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을 복원하는 일이다.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원치 않는 폭력에 훼손당한 삶을 복원하는 일이다. 앞선 물음에 대답하자면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 그렇다면 삶을 복원하는 일도 그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복원 또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의 가능 여부보다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온다. 폭력은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기에 한없이 비박하고 삶은 복원되어야 하기에 더없이 절박하다.

7.

삶을 복원하는 일은 폭력과 삶을 분리하는 일이다.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과 삶을 복원하는 일조차 분리하는 이유는 절망과 비관에 삶을 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빈번히 실패하고 만다. 그로 인해 폭력은 좌절하지 않지만 삶은 좌절한다. 폭력은 애초에 희망보다 절망에 가까운 것이며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희망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다. 삶, 그러니까 폭력 이전의 삶을 폭력 이후의 삶과 분리시켜 바라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신에게 그런 삶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폭력 이전의 삶을 상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의 삶을 진단하여 폭력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말이다.

8.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것대로 가장 힘든 일이고 그것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것대로 가장 절망적인 일이다. 그것이 아니고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9.

그런데 많은 경우 폭력은 타자의 진단으로만 성립된다. 그는 폭력을 가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성립하지만 나는 폭력을 가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

the assailant” cannot. What has been done to me can only be objectively examined by others, hence it always fails.

10.

Victims have no choice but to have flashbacks of the incident and question why and how it happened.

11.

Why am I not strong enough? Why am I hurt? Why can't I move on? When will I be ok? Why can't I take back the control?

12.

These questions lead them to feel helpless no matter where the questions begin. The subject of these questions must be changed.

13.

Why is violence so strong? Why does violence hurt? Why can't violence let me go? When is violence over? Why can't violence be resolved?

14.

If more than one person brings forth these questions together, there will be a way.

15.

And as we search for the answers together, patience is a requisite to continue making the efforts to live a happy life they deserve.

16.

Living is surviving.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of your own itself

은 좀처럼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인식을 통한 폭력의 성찰을 기대하는 것 역시 타자의 기대이며 그 기대는 매번 꺾인다.

10.

폭력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지만 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꾸만 돌아본다. 어쩌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다.

11.

나는 왜 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왜 잊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당장 끝내지 못할까. 나는 왜 해결할 수 없을까.

12.

성찰에서 비롯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은 폭력을 당한 사람의 삶을 더 무력하게 만든다. 폭력에서 벗어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13.

폭력은 왜 강한가. 폭력은 왜 상처를 주는가. 폭력은 왜 잊혀지지 않는가. 폭력은 왜 당장 끝나지 않는가. 폭력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14.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면 함께 대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15.

우리가 함께 대답을 찾는 동안에는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행운이 가져다주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16.

살아가는 일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견사하는 일만으로도 어렵고 고된 일이다.

is an endeavor.

17.

One way to salvation is to pull from the irreversible past and the unknown future, the prologue of the present. Make a record of the assault and address them, comparing the life with it and without, to devise a way to the prospect free from the violence. Imagine who you are and how you feel in the life without the violence.

18.

Fulfilling the life you imagined is a powerful thing.

19.

These are my experiences, what I have done to break away and restore my life.

20.

I hope our unveiling together relieve the society from violence.

**JiYun
Kang**

moderator

As we prepared <Any Such Feminism>, we did not require any specific guideline for the statement to the participants. We assume they gave much thoughts on how to approach this topic. It is interesting to find some common attributes. From BoRyeon Choi's naming the blurred existence of power, Eugene Mok reflecting on the life before the violence, and to Sisterhat's objectification of assaulters from <Common Violence>, all three points fuse well together to concretize what we are fighting against.

17.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와 현재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이 없는 삶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삶과 그것이 있는 삶을 비교한 뒤에 그것이 없어진 삶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것이 없어진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18.

자신이 상상해본 적이 있는 삶을 사는 일은 아주 멋진 일이다.

19.

이것은 내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다.

20.

우리의 발화가 더 많은 폭력을 환히 비추기를.

〈이런 페미니즘〉을 준비하면서 발제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이지 않은, 가이드가 없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제원고를 쓰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세 분의 발제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보련 작가의 발표에서 모호한 대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유진목 시인이 말씀하신 폭력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 언니모자의 〈평범한 폭력〉에서도 가해자를 어떻게 대상화하고 드러낼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세 분 모두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호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지점을 짚어 주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윤

사회자

//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강지윤

사회자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사전에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의 질문을 같이 고민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발제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이나 그 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래 문장들은 <이런 페미니즘> 행사 참여 신청자들이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적어 주신 내용입니다.

-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페미니즘 작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는 어떤 유효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 페미니즘 이슈에 있어 상처를 후벼파지 않고 당사자의 경험에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중용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분명 페미니즘은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 이야기 되어야만 합니다. 또 동시에 매우 사적인 영역에 깊이 얽혀 있어 어디까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

기'로 지정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 사회 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참아야 하는 재밌지도 않은 농담거리

- 성폭력 사건 뒤 피해자/가해자를 바라보는 모호한 시선들

- 스스로를 가두는 사회적 성 역할

-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구인/채용 과정을 보며 업계에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을 항상 체감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신청해주신 분들의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미리 받았었는데, 그 중에 흥미롭게 봤던 질문이 '상처를 후벼파지 않고 당사자의 경험에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였습니다.

아마도 당사자의 지원자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성폭력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용기』(엘렌 베스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퍼냄, 2012)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생존자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지자분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폭력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한 명에게 먼저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섯 명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점점 확대시켜서, 오늘 이런 자리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단계들이 잘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과

언니모자

- 맥주

시각
예술가

정에서 조력자는 최대한 생존자 본인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여성민우회’라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피해자측 동행인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해본다든지 등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작은 말하기’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말하기 모임을 매달 한 번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지지자로 옆에 있을 때, 선택의 권리가 아직 많다는 것을 아는 것,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윤

사회자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요?

언니모자

- 맥주

시각
예술가

친고죄 조항은 2013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기간을 제한해 성폭력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2년 기준 지난 3년간의 상담일지 3739건 중 친고죄로 인한 고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451건을 분석해 친고죄 조항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 유형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보면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결정하는 중압감(37.3%), 고소 및 합의와 관련해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27.2%), 수사/재판기관의 소극적 대응(13.3%), 고소기간 도과(12.7%) 등의 피해유형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고죄는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그 가족 등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를 보자는 괴롭힘도 많았지요. 이러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친고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원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유진목 시인이 말씀하신, 17년 전의 공동체 내에서의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하지 말걸 그랬다,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독립영화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폭력 경험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언인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저를 파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언니들의 도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와 같이 작업하고 활동하는 언니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해자의 부인도 작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경험 자체가 나에게 낙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알게 된다는 것이 괴롭고 싫었는데 이제는 그때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변화된 이유는, 한국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성폭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극복은 항상 저와 같은 사회에 있던 언니들, 나를 지지해주고 싸워줬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노력>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피해 경험이 있어도 대부분 그것을 정의할 말을 갖지 못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너는 피해를 입었고 공동체는 가해의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

언니모자 - 쥬나리

시각
예술가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것이지요.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입는 피해가 아니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를 위해 행동하는 작은 지지들이 막연하지만 해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지윤

사회자

일반 여성으로서 성폭력이나 혐오를 겪는 문제와 예술계 내에서 성폭력이나 혐오를 겪는 문제는 사실 뚜렷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본인이 속한 장르에서 조금 더 특수한 방식으로 성폭력이나 혐오가 일어났거나 혹은 그에 교차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로어1

저는 시각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각분야는 예술계 내 성폭력혐오 문제들이 그 어디보다 완강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요, 여성을 대상화하고 뮤즈라고 칭송하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여성의 성을 계속 대상화해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력과 혐오가 다양한 이론이면 이론, 역사면 역사를 호명해가면서 변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과 혐오에 대해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는 예술가들이 배출해내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예민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호명되는 순간을 보면 참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여성혐오를 옹호하는 기제로 작동이 되는지, 정작 예술가들이 급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나 예민한 문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 순간에는 예술 또는 원작의 의도라

는 이유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계 이론 전문분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예술가일수록 ‘이 사람 진보적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아닌데’라는 식으로 덮으려 하죠.

왜 예술판에서만 작가의 보이지 않는 의도와, 의도하건 안 하건, 문제가 되는 작품이 되었을 때의 책임에 대해 옹호하는 문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현실 세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스처, 성희롱 이상도 빚도 아닌 것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론 분야에 있는 평론가들의 젠더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작업들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는, 남성의 연대는 크고 방대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할 불평등한 구조와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됩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남자분들이 오셨는데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혹은 조금의 효과라도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두 번째 섹션 이후에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지윤

사회자

Section 2 : Knock, Knock, the Art World, the Unlevel Playing Fields

JiYun Kang

moderator

The more experience-based discussions will be held in our 2nd section *Knock, Knock, the Art World, the Unlevel Playing Fields*. We will start with MinJi Ma,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Minji Ma

film director

Hello, I am an independent documentary filmmaker. I will carry on with the hashtag activist movement and talk about how the related affairs have been problematized in the documentary film sector and the progress of such complex problems.

 MinJi Ma ☺

Born 1989, graduated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Film Directing, and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Documentary Filmmaking. She is interested in how the capital functions and bring changes within the space and the place in the city. MinJi Ma directed two short films, <Verbal Life>(2009), <Apollo 17>(2011), a medium-length documentary <A Journal from Seongbuk>(2016), and her first feature film, <Family in the Bubble>(2017).

섹션 2 : 예술계 내 기울어진 운동장 두드리기

두 번째 섹션은 본인의 경험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순서는 독립영화 감독 마민지 감독의 발제입니다.

강지윤

사회자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는 마민지입니다. 예술계 내 해시태그 운동에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 씬 안에서 어떻게 해시태그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민지

영화감독

○ 마민지

1989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방송영상과 전문사 다큐멘터리 전공을 수료했다. 자본이 도시의 장소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 단편 <언어생활>(2009), <아폴로 17호>(2011), 중편 다큐멘터리 <성북동 일기>(2014)를 연출했다. <버블 패밀리>(2017)는 그의 첫 번째 장편영화이다.

/ Remain Visible :

The Unlevel Playing Fields in the independent documentary scene

Around the end of 2016, *Cine21* launched an interview series *Sexual Violence in the Film Industry*. I was one of the 4 contributors for the 6th episode on independent documentary sector. The biggest reason for me to partake in the interview was to publicize sexual violence and gender-specific hierarchy documentary filmmakers encounter in their career. The disturbing experiences I disclosed were met with those of others and it was a meaningful time to realize that it was not just my own story but ours. We often said, to survive in this sector, we either have to become an honorary male, *a fuck-up*, or shut up. Thus, we have decided to become *the fuck-ups* and opened our mouths.

Steps to become a fuck-up

In early 2017, the emerging documentary filmmakers gathered and found <The Sophomore Film Making (SFM).> Our objective wa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to make the questions known to public. SFM decided to declaim against the discrimination and other adversities we go through as a female filmmaker during the forum for indie documentary festival. We started off by describing the obstacles we face making the sophomore movie and then, moved onto biased criticisms, pitching and mentor system, concerns on child care, and lastly, ethics and sexual violence in the documentary sector. Our essays were received with hearty support and encouragement by many including other emerging makers as well as directors who were not aware of these problems. In May 2017, SFM organized a discussion to search for practical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emale

/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립 다큐멘터리 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해

2016년 하반기, 『씨네21』에서 ‘영화계 내 성폭력’ 대담 시리즈가 연재되었다. 여섯 번째 대담으로 ‘독립영화계 내 성폭력’이 기획되었고, 나는 네 명의 인터뷰이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인터뷰에 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다큐멘터리 씬 안에서 경험해 온 성폭력과 젠더 위계 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다. 나만 불편했던 경험을 주변 동료들에게 떠들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경험은 개인의 심증이 아닌 우리의 폭력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이기도 했다. 우리는 계속 영화를 하려면 “명예남성이 되든지, ‘쌍X’이 되든지, 사라지든지 답은 셋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쌍X’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떠들기 시작했다.

‘쌍X’되기의 과정들

2017년 초, <두 번째 영화, 찍을 수 있을까?(이하 두영찍)>라는 이름으로 여성 신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모였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우리의 경험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두영찍은 인디다큐페스티벌 포럼에서 여성 신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두 번째 영화를 찍기 어려운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사적 다큐멘터리 비평의 경향, 피칭과 멘토링 시스템, 육아를 하는 여성 제작자의 어려움, 현장 윤리와 다큐멘터리계 내 성폭력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발제 내용에 공감하는 신진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신진 제작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새롭게 알

documentary filmmakers were facing. Our strategy was to bring together accomplished directors and young filmmakers to get our opinions heard and change the unjust system. The discussion 〈How was It Made? (SFMade)〉 had more than 20 renowned and emerging filmmakers participated. Depreciation of personal documentaries in the criticism and research area and ethical dilemmas around male producers we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on policy and system, we agreed upon the reproduction of power structure within the confines of pitching and mentoring system necessary. Furthermore, we discussed the existing policy isolating the working mothers in the industry and the lack of support system for female directors whose career have been put on hold for the very reason.

Standing ground

More discussions on detailed measures for sexual and gender-specific violence were brought to the table after the SFMade forum. Most incidents were happening to the new and emerging producers and staffs who had no experience in making. However, the stories remained as *rumors* since the cases were not publicized and more challenges were on the victims yet again.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know that asking *the details of the assault itself* can be the secondary assault on the victims. Some also deemed inappropriate the reference on school sexual violence at a film festival. Nobody seemed to take me earnestly when I disclosed my experience and that I was a victim. Speaking as a victim could not afford any recognition. Since I was the subject reserved to solution, various rumors and harsh criticism on our group's approaches were fired directly at me. Other victim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upporters combined, were

게 된 기성 감독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졌다.

2017년 5월, 두영씨는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진 감독들의 목소리로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기성 감독들의 힘을 모으는 것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좌담회 <두 번째 영화, 어떻게 찍었어요?(이하 두어찍)>에는 약 20여 명이 넘는 신진 및 기성 여성 감독들이 모였다. 비평 및 연구의 영역에서는 사적 다큐멘터리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장 윤리에 대한 고민 역시 남성 제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논의가 오갔다. 정책 및 제도의 영역에서는 피칭과 멘토링 시스템이 다큐 씬 내의 위계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현존하는 정책과 제도가 육아 중인 제작자들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된 여성 감독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어찍 포럼 이후에 성폭력 및 젠더 위계 폭력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관련 폭력 사건들은 주로 씬 내부에 막 진입하여 제작 경험이 없는 스태프 혹은 신진 감독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않은 터라 성폭력과 젠더 위계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카더라 통신’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 행위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또한, 영화제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나는 여러 차례 스스로 피해 당사자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wamped by the rebuke.

It was an urgent period for us to move forward with our objectives but we acknowledged that this battle was not a quick fix. SFM put a pause on the activities in public and decided to stand post individually for the time being. It was critical for us to figure out first the capacity we have independently to bring the change together: a director and the chair of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t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SoonAh Nam at her position, a director and a media activist, GaHyun Yoon out in the field, and my fellow directors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oHee Myung and SooEun Jung and I on the campus ground. The academic discussions on sexual and gender-specific violence was most compelling inside the school ground and it led to another forum *Prevention for gender violence for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The SFM members continued to voice our opinions alongside students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putting up posters on improving academic systems. Now, as Spring semester of 2017 has come to an end, Gender Equality Committee was found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many contributors' undertaking and efforts.

The Unlevel Playing Fields in the independent documentary scene

Ironically, the question we received the most was if there truly the existence of sexual violence and gender-specific hierarchy inside the documentary film sector. From numerous conversations and dispute between the filmmakers emerging and the already accomplished, we confirmed the inevitable generation gap through the transformations

당사자라는 사실이 곧잘 잊혀지는 듯 보였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발언을 했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 역시 당사자였기에 그 과정에서 떠도는 소문부터 구체적인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필터 없이 들어왔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대리인들과 조력자들 역시 말의 홍수 속에서 모두가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다.

시의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은 중요했지만, 무작정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영짱은 공식적인 활동을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남순아 감독은 협회 내부에서, 영상활동가 출신인 윤가현 감독은 활동 안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인 나와 명소희 감독, 정수는 감독은 학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후 학내에서는 학회 차원에서 성폭력 및 젠더 위계 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방송영상과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학교 소속의 두영짱 멤버들 역시 학과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판적 시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17년 1학기가 마무리된 현재,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방송영상과 내에 ‘성평등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독립 다큐멘터리 씬의 기울어진 운동장

일련의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다큐멘터리 씬 내부에 성폭력과 젠더 위계 폭력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였다. 수많은 대화와 논쟁 속에서 신진 감독들과 기성 감독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 다큐멘터리 씬의 경향이 변화

in the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scene. Around the 90s til 2000, filmmakers were mostly part of a media activism group, working together to produce a film. The new emerging filmmakers at the time were cultivated from within those groups. The staffs and the crews were strongly united and the films produced were credited under the group's name as well. However, after mid 21st century, things started to change; new and emerging filmmakers started making films on their own outside of the group associations and many of them were trained from a certain academy or a media center. Movies were produced by private film crew and they were frequently project-based.

The conversion brought about two major differences in the industry. As for a member of such groups in the 90s, it was a smooth ride to gain the director title. In the current state of the film industry, we are received as *a young female individual*, not as *a member or a part of any groups*, hence the climb to the title is stretched out and the exposure to sexual violence and gender-specific hierarchy is ever-present. Another major barrier is the elimination of self-examination and treatment for sexual violence and gender-specific hierarchy, which could have been achievable through pertinent evaluations and analysis within the group setting. As directors latch on the authority on the film set, the new and emerging directors, making their way to their first documentary film, are forced to be on the staff line, viewed as expendables to the production. Losing their grounds, they become more vulnerable to sexual violence and gender-specific hierarchy and without any colleagues on guards.

Fuck-ups prevail

The battle is on-going and I am working toward resolving these

하면서 각자가 경험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영상 운동을 위한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 신진 감독들 역시 단체 내부에서 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작 과정 역시 단체가 곧 스태프 구성원이며, 단체의 이름으로 영상제작이 이루어졌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신진 감독들은 대다수가 단체 밖에서 파편화되어 개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나 미디어 센터에서 양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프로젝트 단위의 개별 프로덕션 체제를 통해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큰 차이를 불러왔다. 먼저 기존의 촬영 현장에서 감독 개인은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지되었고, 비교적 빠르게 감독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단체의 누구’가 아니라 ‘젊은 여성 개인’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감독의 위치를 획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성폭력 및 젠더 위계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프로젝트가 단체가 아닌 개별 프로덕션 체제를 통해 제작되면서, 단체 내부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폭력 및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자정의 순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프로덕션 체제는 감독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제 막 첫 번째 다큐멘터를 제작하고자 하는 혹은 제작하고 있는 신진 감독들이 스태프 역할을 하면서 스태프 간 위계 속에 놓이게 된다. 단체 내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위치하기 어려워지면서 성폭력 및 젠더 위계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동료 역시 부재하다.

‘쌍X’으로 남기 위해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영상과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relentless problems taking place with the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s Gender Equality Committe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 the school emptied out on vacation, the utterance died down as if nothing had happened. Also, with the political power transition, discussions on culture and art policy are more emphasized even amongst us. We acknowledge that it took extended period of time to bring up the courage and the questions to the surface and that it requires a lot more time for the changes to be made within our society. We need to educate ourselves more and we hope victims can be brave and supporters be tenacious. We have determined to remain as *the fuck-ups* and we are. As the SFM's catchphrase goes, a camera on one hand and each other's hand on another, we are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this battle.

**JiYun
Kang**

moderator

The #SexualViolenceInArtWorld has spread around the internet for quite a while and now that it has passed, we were left to wonder how this discourse can stay steadfast. Even so, this round table discussion and all the participants here are the proof that there is still strong force amongst us that unite us to stay tenacious indeed. It was interesting to learn that female filmmakers are exposed to more hierarchal discrimination and that they have such disgraceful career track when they work independently. Especially because my own experience of being part of a group has always suggested vice versa, it certainly gave much to think about. Now let's hear from our second presenter, a music critic, YoonHa Kim.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는 방학이 되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큐멘터리 씬은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성폭력과 젠더 위계 폭력에 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 that 필요했으며, 계속 싸워나가기 위해 피해 당사자들의 더 큰 용기와 조력자들의 끈기와 행동력이 요구되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쌍X’이 되기로 했고, ‘쌍X’으로 살아남기로 했다. 두영씨의 캐치프라이즈처럼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우리의 손을 잡고, 두 번째 영화를 찍기 위해 더 큰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SNS를 한참 달구던 #예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물결이 지난 뒤에, 언제까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고민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처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힘이 되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일 경우에 여성감독이 감독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계폭력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은 세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단체에 있을 때 위계폭력이 더 강화된다고 느꼈었는데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셔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자,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지윤

사회자

**Yoon
-Ha
Kim**Music
Critic

Hello, my name is YoonHa Kim. The statement just shared is very burdensome as it is. I wanted to be inspired with these stories coming here more so than to present my statement, which will be intertwined with some of the details discussed. Feminism of 2017 is directly related to women's survival. Victims or career women, we all live in this society surviving each day and there comes a situation when we need each other's help. I don't belong to any association and I am not doing anything tangible to add to the cause but I would like to share my position as a music critic and the experiences I had in my field.

/ Hello, I Am a Music Critic, YoonHa Kim

Hello, I am a music critic YoonHa Kim. 20 years it has been since I accidentally came across writing and I still have trouble with introduction remark. I may be regarded as a professional writer but it started as a hobby and I don't quite have the confidence to claim the title *critic* that comes after my three-letter name. it could just be my personality.

YoonHa Kim ☺

A music critic, a member of planning committee for EBS <Space Gonggam> and NAVER <ON STAGE>, and a selection committee for Korean Music Awards. She contributes for several on/offline communication media periodically and project base, living somewhat happily.

김윤하
음악
비평가

김윤하입니다. 앞의 발제를 통해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발제를 하러 왔다가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생존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해자도, 일하는 사람도 살아남아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체 소속이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음악비평 씬이라는 한줌의 필드에서 여성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입니다. 모종의 재화를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한지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저를 소개하는 수식이 영 탐탁지 않습니다. 취미와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상태로 프로페셔널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일지도, 이름 석 자 뒤에 ‘평론가’라는 직함을 붙이기엔 스스로가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

○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EBS <스페이스 공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며 다수의 온/오프라인 매체에 음악과 관련된 글을 정기/비정기적으로 기고하며 나름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It sounds ironic to critique works that artists put their heart and soul into without conviction of my capability, but it is what it is. As they say, life goes on; you do not have full control of how your life turns out to be. But, I have been owning that title whenever I had the chance these days. It is still awkward due to my life-long habit and my natural characteristic, but I keep telling myself to do so.

The reason is, I finally realized that it is a requisite to be who you are, whether it has any judgement of value or not. I need to both let it be known and hide it whenever the situation calls for it, to make people understand that I am indeed a music critic. It was only a recent discovery but frankly, I have done exactly that since I have been writing professionally. It must have been an unconscious survival instinct as natural as it happened, just like breathing. Thinking back, many disturbing suspicions I had and on my own conduct stem from the same root.

I am a music critic. And I am a woman. Before you even recognize that I am a woman, you are stuck at the music critic. I am neither a reporter, nor an editor. I don't belong to any entity hence, a freelancer, someone that goes unnoticed unless they promote themselves.

Pinch webzine reported only 5 out of 63 selection committees for the 14th Korean Music Awards were women and I happen to be one of them. I was often the only woman in the meetings but assumed others were attending online meetings. It was a surprise to see the number at first and soon, I could piece together the confusion. The number

니다. 타고나길 확신 없이 태어난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이의 피와 같은 창작물을 이리보고 저리 나눠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한 번 시작된 인생은 의도와 상관없이 어디로든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가 요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대중음악평론가라 칭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버릇과 타고난 성정이 있으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아무런 가치판단도 들어 있지 않은 이 말을 상대방 역시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받아들여야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대중음악평론가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종종 저를 더 감추거나 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글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의식적인 생존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 숨은 노력의 존재를 인지한 것 역시 최근 일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일을 해오며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던 순간들 역시 대부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중음악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사실 여성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대중음악평론가에서 이야기가 막혀버립니다. 저는 기자도 에디터도 아닙니다. 특별히 소속된 곳이 없고 따라서 프리랜서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생활문화 웹진 『핀치』의 기사에 따르면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63명 중에 단 5명뿐인 여성 선정위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이면서도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습니

has never been so low as this year 2017. Where have all the potential female committees gone? The most common reason for exclusion was marriage and childbirth. Not being able to attend meetings and having to spend time focusing on their family affairs, they slowly parted with music. I have not heard any specifics, but I predict many were not entirely happy with the gender imbalance restraining women's voice on the table and the atmosphere of after-party as well as.

If anyone asks me this unfair treatment to women is prevalent, I would say "Yes" with all honesty. There are no men choosing to withdraw from the posi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because of marriage, childbirth, or the male-dominance in the workforce. The most plausible reason why I, out of the five women committee members, could retain the position is because I am an insensitive single woman who lacks mindful attention to what's happening around me.

This unfavorable illustration of who I am have often sustained the discriminations I faced as a single woman. On numerous occasions, I was mistaken as my fellow critic's girlfriend or a wife at concerts just because I was a woman. Even while filming a TV show or during a forum, I could just feel the skepticism pouring over me being a professional music critic as a woman. Only if I were a middle-aged man, or better yet, as a man, I could go without such prejudice.

Fortunately, I work with colleagues who respects me regardless of my sex and I have an inquisitive trait that also works in my favor in my field - the stacks of music that are being produced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from Indie,

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홍일점이 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오프라인에 한정된 상황일거라 쉽게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놀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2017년이 극단적으로 적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적지는 않았던 여성 선정위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가장 흔한 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탈락의 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회의 불참만이었지만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스레 음악과 멀어진 경우가 많았죠. 딱히 듣지는 못했지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성비 속에서 자연스레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별 중심으로 흘러가는 회의와 뒤풀이 분위기가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비단 여성 선정위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나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남성 위주의 분위기가 불편해 오프라인 회의에 뜸해지거나 선정위원을 그만둔다는 남성 선정위원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5명 중 한 사람이자 수년간 유일한 여성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위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둔감한 성격을 가진 싱글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 안에서 일말의 이점으로 작용한 저에 대한 이 정의는 실제로 필드에서 활동하기에는 딱히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패널티로 작용하는 상황이 많았죠.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불편을 느낀 대부분의 상황 역시 바로 제가 젊은 싱글 여성이기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료 평론가와 함께 찾은 공연장에서 그들의 여자친구나 부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방송이나 포럼 등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눈빛을 받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중년의 남성 아니 최소 남성이었다면 전혀 받지 않아도 되었을 오해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저의 성별과 상관없이 저를 있

K-pop, to idol music, I consume it all; I am a contents hardware that upgrades itself automatically. The female music critics without such fortuitous impetus must relatively feel shut out from the field that is already slippery with male-dominance; it must be the reason why they find it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music women in their 20s and 30s enjoy.

This reminds me of the first time I wrote about music in high school. I had no knowledge of what a music critic was and I wasn't making any money with my writings. I used to write on Cheonlian and Nownuri portal sites and I remember having a sense of pride when a reader thought I was a male adult writer. It was impressive to have deceived someone of my age and the sex, but the recognition I felt I had gained - a delusion to be exact - having written *rationaly* and *objectively* like male writers was more stimulating.

I no longer boast on the shallow accomplishment created by my own delusions but I also do not want to point fingers to those who do, because I was once one of them. What I dream of is the time when we run into a high school student proud to be misconceived as an adult woman. I hope for the society where everyone's inclination and opinion reserve respect, not a fallacious judgement inflating social division. Better society it will be when an individual at his or her place accomplish what they pursue without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There is no answer but prospect and I wait for tomorrow bearing this hope in mind. Until that suspicious discomfort is completely gone, I am a woman and I am a music critic.

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끌어주는 동료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도 운을 끌어당기는 요소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요에서 홍대 앞 인디, 케이팝 아이돌까지 음악은 제 귀를 끝없이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꾸준히 콘텐츠가 업그레йд 되는 드문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의 돌들을 발견하지 못한 여성 평론가 분들은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한쪽으로 거칠게 치우쳐있는 동종 업계 분위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처음 음악에 대해 글을 쓰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직 돈을 받고 글을 쓰던 시절이 아니었고, 대중음악평론가가 될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천리안과 나우누리라는 이름의 PC통신망을 통해 종종 음악평론글을 올리던 저는, 가끔 누가 저를 성인 남성으로 오해하면 괜스레 우쭐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글만으로 나이와 성별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한 한편 남성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글을 쓴다는 것을 인정받은 듯한 착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오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성취감에 우쭐대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언젠가 자신이 성인 여성으로 오해받은 것으로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고등학생을 어디선가 꼭 만나볼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릇된 가치판단에 의한 계급 나누기가 아닌 각자의 취향과 발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각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해내는 사람이 늘어날 때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라도 나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리고 싶어집니다. 이제야 깨닫게 된 그 묘한 불편함들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대중음악평론가입니다.

JiYun Kang

Moderator

It was interesting to find that YoonHa Kim considers herself lucky, but It makes sense to me that she still shies away from her professional title even though she has a successful career. It must be coming from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not having a self-conviction and habitually self-examining and self-assessing that which many women share.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roused many women to think they were lucky to be alive. Reflecting on YoonHa Kim's statement, I wonder if this is the type of fate women pray to acquire, to survive in this society. We must als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and other higher-power seats are most likely to be taken by men in a community where female population outnumbers the male statistics. Our last presenter, SunYoung Choi on childbirth and childcare, will continue with the reason why women must give up their seats.

Sun-Young Choi

Visual Artist

Hello, I am a visual artist and a mother of 7-year-old boy. I work as a cultural planner and practice art but being a mother may be a priority to me. I would like to describe my life as a female artist and a mother in this world view.

SunYoung Choi ☺

She is interested in the values of creative practices that are difficult to conceptualize with common theories. Her art evolves from the attempts made in the various life styles and she aims to introduce the meaning of such practices in the society.

강지윤

사회자

저는 김윤하 평론가의 글에서 본인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가졌음에도 아직도 자신을 대중음악 평론가라고 지칭하는 것에 쑥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자기 확신이 별로 없고 자기 반성하고 자기 검열하는 것이 특히 여성들에게 내재된 태도처럼 읽히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생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 때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라는 말들이 있었 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는 운이 받쳐줘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보통 문화예술계는 여초 커뮤니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남성이 훨씬 많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여자가 없는가에 대해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발제자인 최선영 작가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영시각
예술가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최선영입니다. 문화기획과 미술작업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7살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면 더 크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계 내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성예술가이자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선영 ○

'무엇'이 되기 전의 어떤 작업. 그걸 계속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 것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활동을 요즘 해보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 Stories removed from
“Challenge of A Mother Artist”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not allowed to be on the bus for more than 20 minutes

If you could not leave the house for more than 2 hours

If you had to leave the house but needed someone to be there for you and it could only work on their timeframe

If you had to wake up every 2 hours at night

If your fingers are so swollen that you couldn't be on the computer for long

If you had to do the laundry and dishes, clean the house, and even prepare meals on top of everything

If you were not even allowed to be sick

If you had to sleep whenever you could, let alone have time for any readings

If you had no one to tell and no one to listen to you, and so you had to choose to shut up

If you could not relate your position to those with different lifestyles

If you had to hear “You must be a good mother,” all the time.

During my pregnancy, labor, and childcare, these were the conditions wrapped around me. Few minutes on the bus, the morning sickness kicked in, stuck at home breastfeeding my child, and I don't remember what a good night's sleep is anymore. Every day was a step away from the life I had dreamt of, conversations with fellow artists, going for a walk under

/ “엄마 예술가의 도전”이라는 말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

만약 이런 상황 안에 누군가 놓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 수 있을까.

20분 이상 버스를 탈 수 없다.

집을 2시간이상 비울 수 없다.

집을 비워야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스케줄을 모두 조정하고
부탁해야 한다.

밤에 2시간마다 깨야 한다.

손가락이 부어서 컴퓨터를 오래 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매일 빨래, 청소, 식사 준비를 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남는 시간에는 책을 보는 대신 어서 자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매일 내 입으로 말하거나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공감하기 힘들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위와 같은 상황 안에서 한동
안 지냈다. 갑자기 시작된 입덧은 버스를 오래 탈 수 없게 만들었고
모유만 찾는 아이를 위해 집을 비우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주변 예술가들을 만나 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
고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미래를 상상하던 일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순간들로 저만치 멀어져갔다. 새벽마다 어둠 속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대학입시를 했는지, 친구들과 어
디를 놀러 다녔는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다음 전시는 어
떻게 기획 했었는지를 떠올리기 시작하면 나만 외딴섬이 되어 아무

a breezy night. Instead, I was feeding my child in the dark reminiscing how difficult it was to get into university, my trips with friends, and the kind of art practice I wanted to have with an exhibition just around the corner. I felt like a sinking island under the sea, isolated from everyone and everything. Neither crying was the solution nor anyone could help this dreadful situation. There was no going back and frankly, even if I could, I could not see the reason. I was not an exception for postpartum depression either, but what I have realized after meeting many other mothers suffering every day from PPD was that my symptoms were minor. One of the mothers jokingly said to me that it was about time to be depressed, and for some reason, it was a relief. It sounded to me, “That is life, we were just kidding ourselves.” I was the loneliest soul on the planet at the time and so I built a habit of listening to my neighbors’ loneliness. I found myself weighing those solitudes and laughing at their misfortune. With dismay, I confess it was the time I needed. I gossiped behind people for my survivor and naturally, I was surrounded by those worried about the marriage, preparing a wedding, pregnant, and the mothers. Then, fighting to get close to *art* as much as I could, I taught afterschool art classes and I started keeping a record of dialogues I have had with these people. I can’t say that I know how it started and why, but I had to bring myself to do something to identify myself as an artist.

I put my son to bed at night and started writing and the writings became a lyric for a song. The lyrics needed a tune, so I asked a musician friend for help; we could only correspond via email but it was ok. She sent me the beat to my song and I tried

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없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산후우울증. 짧고 쉬운 그 말은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뒤늦게 안 건, 나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우울감을 가졌었다는 것이었다. 훨씬 더 우울하게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된 건 그 이후였다. “하하, 지금이 딱 우울할 때지!” 하던 한 엄마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했다. 그 말은 “삶은 그럴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몰랐거나 모른 척 했던 것이다.”라는 말로 내게 기억되었다. 우주에서 가장 외로웠던 나는 옆집, 그 뒷집, 그 건너편 집 누군가의 외로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외로움의 무게를 꺼내보고 나누고 심지어 저울질하며 깔깔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래서 결혼을 걱정하거나 준비하는 사람, 출산을 앞둔 사람, 육아를 하는 사람 등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방과후 강사로 ‘미술’의 근처를 겨우 기웃거리던 나는 이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건 의도된 작업도, 계획된 사업도 아니었다. 뭐라도 해야 했고 그것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새벽에 아들을 재우고 밤마다 쓰던 그 글은 가사가 되었고 노래를 꿈꿨다. 전시도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는 뮤지션 언니에게 가사를 보내 작곡을 부탁했다. 우리는 만날 수도 없어서 메일만 주고받았다. 언니가 비트를 파일로 보내주면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새벽에 가사를 읊조렸다. 그렇게 노래인지 랩인지 타령인지 아무튼 어떤 음악 2곡이 나왔을 때, 나는 발표를 하고 싶어졌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발견한 전시공모에 지원하였고 운 좋게도 전시와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 퍼포먼스 날은 마침, 내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돌잔치 대신 나는 아이를 메고 비트에 몸을 들

singing my song sitting on the toilet. I could not tell whether it was a song or a rap I was singing, but I had two songs on my hands and the desire to present it somewhere. I found a call for exhibition online and fortunately, my work was selected for an exhibition and a performance. The day of my performance was my son's first birthday. My husband was an artist himself that he was the DJ at the performance while I had my son in my back dancing and letting the song out of me.

Together with my husband and my son, we ended up making more music; we installed crazy lightings to film music videos at home as well. I could debut as MC. mama with the support from a cultural foundation.

We may just be the lucky couple with artistic foundation to have sublimated a postpartum depression into art but the other aspects of my experience from this project should be noted. I could not have done this alone. I do not think I have accomplished anything or overcome any hardship. Still, my position as a mother and the ordeals I mentioned above remains, so I try. I try harder to look for the way that works for me every day with the people who understand and encourage me. There were people scorning me for not making work that pays or that I am not spending more time with my child and even for not cooking for my family. Nothing c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valuable people who stood by me; they are more precious to me than the album I produced through this project. These people slipped into every part of my life and my work. They understood my desperate yearning to be part of the community and to not isolate myself in the dark. This whole experience also

씩이며 가사를 토해냈다. 함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은 옆에서 디제잉을 하고 나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이후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노래를 만들었다. 집안에서 요란한 조명을 설치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고 덕분에 MC.mama라는 이름의 앨범으로 발표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산후우울증을 창작으로 승화시킨 예술가 가족 정도로 느껴진다. 물론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찍는 등의 창작 기반이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 작업 과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에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그것은 내가 혼자 이것을 절대 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무언가를 해내거나 극복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이 글의 맨 처음에 언급한 10여 가지의 힘든 상황 대부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더 정확히는 살아보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작업과 내 삶의 소중한 요소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림에 도움도 안 되는 작업이나 할거냐, 아 이랑 왜 덜 놀아주냐, 전시가 중요하냐, 반찬은 안 만들거냐라는 말 대신 나의 현재 고민을 같이 나누려는 누군가의 태도는 번듯하게 나온 음반보다 더욱 소중하다. 그것은 누군가가 꼭 나와 창작을 함께해서가 아니다. 창작의 곁에서 보통은 언급되지 못하는 너털너털하고 구질구질한 생활의 구석들을 같이 닦고 들여다보고 챙기는 움직임 모두가 내 삶과 작업을 응원한다. 그것은 멋지거나 의미 있는 예술의 실현이전에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뭐라도 좀 해보려는 한 개인에게 큰 힘이 된다. 그 힘은, 예술세계를 고민하던 내가, 과연 나와 주변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그 오랜 질문, 예술 혹은 작업은 대체 무엇일까 종알거리다 이제는 예술서적 대신 눌러 붙은 밥풀의 생생함을 본다.

made me wonder if I was looking at the right question in life. I have held that long overdue question, What is art? and now, I realize I am more mesmerized at the squashed piece of rice than an art book.

My album communicates about childbirth and childcare, the concern that is already recognized by many women. However, what I most like to convey through my music is not what I *did*, but how I *did it with* whom. The music is a record and the evidence to that message. How my attitude towards life and my work has changed since the first project is what I am concentrating now.

MC.mama's 2nd album will be out early next year and it is not just for me. This whole project is an on-going process of connecting with those who need solace, a link between myself and my family, mothers breastfeeding as they read about stories on their smartphones, and everyone who is distressed.

**JiYun
Kang**

Moderator

I understand how content, medium, and even the atmosphere dictate the work itself; people often make a joke that the size of the work depends on the size of the studio entrance door. As for SunYoung Choi, an artist going through childbirth and childcare, it is only logical that her art practice adjusts to that stage of life. Identifying her as a mother-artist, giving into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work, is a question we should ask ourselves. I had met SunYoung Choi at a meeting, discussing the working mothers' opting out of their career. I had assumed that it would not affect the women in the art industry as much as it does for other working mothers since they have certain freedom to

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음반을 발표했다. 이것은 여성에 관한 이슈로 소개될 가능성이 많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와 어떻게 ‘같이 살아보려 했는지’를 더욱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다. 음반이나 음악은 그 이야기를 위한 하나의 단서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반을 발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 이후에 삶과 작업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이다. 나는 현재 그것을 발견하고 실험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내년 초에 MC.mama의 2집이 나온다. 아이엄마의 두 번째 도전이라고만 말하기에, 그 작업은 지금도 부지런히 흘러내리는 삶을 닦아내고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되고 있다. 내 가족은 물론, 오늘도 혼자 모유수유를 하며 세상의 이야기를 스마트 폰으로 전해 듣는 누군가, 혹은 그런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누군가에게까지.

저도 그렇지만, 작업의 환경에 따라 내용이나 재료가 달라집니다. 작업실의 문 크기에 따라 작품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농담도 합니다. 최선영 작가의 말처럼 출산과 육아라는 환경을 만났고 그에 의해 작업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반대로 결과를 먼저 보고 엄마예술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력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최선영 작가를 처음 만났는데, 저는 예술계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는 그나마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모든 3년 이내의 전시 경력을 요구하는데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 당연히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격

강지윤

사회자

their practice, but I was surprised to find otherwise. Any call for exhibitions require works produced within maximum 3 years as well as show experience for artists and this itself delays mother-artists' from reengaging in the art world.

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강지윤

사회자

지금까지 각각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음악평론, 시각예술 분야에 계신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분의 발제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목

사인

마민지 감독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개인적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경험을 했어도 그 상황이 지나가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남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 <걷기왕>이 제작에 들어가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스태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장편영화 스크립터로 다섯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단절기간이 있는데 쉬게 된 계기가 두 번째 작품에서 남자 감독에게서 들었던 부적절한 어휘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연출팀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었고 연출팀에 여성 스태프는 저밖에 없으니까 심각한 성희롱 언어가 오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마지막에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감독이 ‘내 무릎에 앉아라’라는 이야기를 공적으로 하고 누구도 그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쿨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정색을 하느냐에 따라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가 결정되는 경우였던 것이죠, 제가 참여했던 영화는 독립 영화였고 그 감독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을 쉬다가 5년 만에 다시 스크립터를 하게 되었는데요, 5년 전에는 위축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이 오갔었는데 5년 뒤에 복귀했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현장이 좋아졌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현장이 좋아졌고 남자 스타프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경험을 했지만 다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모든 뭐든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된 상황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여성 스타프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에 대해 외면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타인이 겪는 피해나 고충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운영단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젠더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자가 아니면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자마저도 혐오발언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언제 가능할까 아득한 생각도 듭니다.

강지윤

사회자

마민지

영화감독

저는 대책위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성민우회 등에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신청을 하려 했더니, 예방 교육 및 가해자 교육이 너무 밀려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슈가 되다 보니 신고 접수가 많아지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특히 가해자가 너무 많아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교육 차원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상담 교육이나 절차에 대한 훈련 내지는 어디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싸우고자 하는 에너지나 감정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피해 당사자에게도 필요하고 주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주로 30-40대, 서너 편의 작품을 만든 감독님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대 때 혹은 신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고 있었다, 지금은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동력이 되어주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다 같이 확인했던 경험이었기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김윤하

음악비평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이게 한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에서의 성희롱적인 발언과 말하

기 전엔 몰랐다는 것은 음악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몰랐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담인 줄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요. 우선은 여성 사이에서의 연대가 중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이건 개인적이건 여성들끼리만 이야기 하다보면 지치고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깨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동의를 하고 이후에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등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 안에서의 도태가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앞에서 ‘그건 성추행이에요’라고 해도 시끄럽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반면 남자들이 말하면 화를 내며 반박하거나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도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왜 심사위원은 남자가 많은지에 대해 이어 이야기를 해 보자면, 경력단절이 큰 이유입니다. 심사위원은 동일분야에서 10년 정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령이 높고, 그 정도 나이까지 경력단절 없이 활동하려면 남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심사위원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제가 결혼을 했으면 여기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은, 예산과 인력, 공간의 문제가 일단 큼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안 그런 남자도 있어요’라든지, 여성분이 체제를 보호하려는 듯한 말을 하시는

언니모자

_ 맥주

시각
예술가

것을 들을 때 꽤 절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말해야만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김윤하 평론가의 말처럼 동료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은 사실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아까 주나리가 말해 준 것처럼 여성들의 연대가 희망이기도 한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각자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플로어2 앞에서 도태시킨다는 이야기와 교육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 저에게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 때부터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친한 친구 세 명 중 두 명이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런 것을 왜 하냐, 인스타에 그런 사진은 왜 올리냐”라는 폭력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이 폭력이니까.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페미니즘 이야기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싫었고 오래된 그 친구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그 친구들로부터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책을 추천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보다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여성혐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역시 생활 정치가 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교육한다거나, 내 감정과 상처를 설명해줘서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놀랐었고요, 그래서 저들을 넘어뜨리기보다는 알아서 도태되는 것인가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의존하며 갈 것인지, 피해자의 고통과 증언을 통해 사건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잔인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친이 성폭행 범죄가 되기까지 어린 피해자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나온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개인이 주변인을 교육하고 개인이 끊임없이 나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운동의 과정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는 각 진영에서 교육이나 방지책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젠더 교육을 민우회나, 다른 성폭력 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생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또 다를 것인데요, 자꾸 사건이나 이슈로 운동이 끌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슈가 터져서 정책이 만들어지듯이 이제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방지책과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고민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제목이 <이런 페미니즘>인데요, 그 안에는 다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페미니즘일까, 이런 것도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나도 이런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 혹은 두려움 등의 주저함이, 여성들 안의 자기 반성이나 겸손함, 자기 확신이 없는 것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두려움 다음에 들었던 걱정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과 올해 초 해시태그 운동의 결과가 기록으로 나오는 시점인 듯합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작은 피해만 입었고, 당사

플로어1

강지윤

사회자

임나래

서교예술
실험센터
5기 공동
운영단

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연대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분들을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알아가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도 고민입니다.

플로어1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각자 분야에 맞는 활동가 양성에 맞춰진 교육이다 보니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과 결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운동 쪽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성인권진흥원만 봐도 예술 쪽에 관심과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활동가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움직임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작가들과 협업을 하여 전시를 하는 등의 활동은 있었지만 이제는 진흥원 차원에서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이 이런 교육을 못 받는다, 나에게 문제가 직접 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계열의 단체와 조인해서 교육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도 의미있지만 어떤 한축으로는 여성인권진흥원 같이 이미 조직된 기관과 협력해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어2 주로 남성들이 늘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에 익숙해서 페미니즘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당사자성에 대한 비판에 고민이 없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이게 쿨한 거다, 진보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접근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렵게 더 꼬여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책을 읽는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자리들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지되고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SNS 해시태그 운동과 『씨네 21』 좌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이나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주요 단체에서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던 없던 자각이 되었고 모두가 변화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3

영화계 내 성폭력이 이슈가 된 다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최근에 진행했습니다. 영진위는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장편 극영화의 경우 그 교육을 들어야만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작지원을 받은 영화에서 교육을 듣는다면 강사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기성 영화인들이 해시태그 운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거기서 저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은 ‘옛날엔 더 심했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다들 영화계 내 성폭력이 문제인 것은 알지만 요즘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유진목 시인도 관련 문제로 쉬는 기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겪었던 현장은 학교 교육기관의 작은 작품 현장이었고 당연히 가해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중심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있는 거지’라며 필드자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겪었던

더 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일들에 대해서는 영화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영화계인지 고민이 들 정도로 사건자체를 타자화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계에는 다양한 해결주체가 있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진위 같은 경우, 여성영화인 모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지만 애초에 문제제기를 시작했던 경력이 적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연결이 되지 않아 서로 따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단절감이 느껴집니다.

강지윤

사회자

미술계 내부에서도 성폭력 문제를 젊은 여성 작가들이 앞서서 이야기 했는데 이후에 남성 작가들 혹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기성 여성 작가들이 뒤따라 지지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플로어해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아직 해결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정말로 극복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민지

영화감독

이번에 학교 안에서 싸우면서 얻은 성과는 다음 학기부터는 신입생에게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학기 동안 학내 구성원들 간의 공개 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통감하고 있던 학우들 그리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자 했던 학과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들이 이어졌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이고 졸업학기를 앞둔, 학교 밖으로 나올 사람이니까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료생이라 일상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처지였다면 목소리를 내는데 훨씬 더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과정을 겪으며 그 안에서 패배감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건을 해결하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밀고 나가려고 한 이유는 이것을 제도화해 놓아야 신입생들, 나아가 신진감독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싸움이 되겠지요.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무력감을 느꼈던 때는 이제 말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나고 연대할 힘은 생겼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플랜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연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달리 현실에서 싸워나갈 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다음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배워가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단축시키고 앞으로도 더 잘 싸우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을 개선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JiYun
Kang**

Moderator

We all recognize that today's discourse alone cannot produce any tangible transformation right away. It too is unfortunate that we can't expect major change from continuing discussions on feminism. These facts were the very reason that which concerned the participants of <Any Such Feminism>. However, Eugene Mok's words, "urging us to never stop questioning," assures us of our venture and galvanizes our future actions. To that end, we hope to see you again even if our topic remains the same as today's. Thank you all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patience for the warm weather and humidity.

2017. 07. 21

9 p.m.

오늘의 이 자리가 실질적인 개선책이나 눈에 띄는 한 걸음이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만큼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피로감도 분명합니다.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이런 페미니즘> 시작 바로 전까지 걱정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되지 않더라도 질문은 멈추지 말자’는 유진목 시인의 말이 안도와 위안이, 그리고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와 습기를 이겨내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설령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반복일지라도, 다시 만나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지윤

사회자

기획 및 편집 서교예술실험센터 5기 공동운영단 강지윤, 임나래
 진행 서교예술실험센터 5기 공동운영단
 서교예술실험센터 배소현, 이려진, 임시우
 주제발표 김윤하, 마민지, 언니모자, 유진목, 최보련, 최선영
 국문교정 김은기
 번역 조은영
 디자인 강지윤
 인쇄 (주)K&C 가람장애인 인쇄공방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주관 서교예술실험센터 5기 공동운영단
 발행인 주철환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7년 10월

Director JiYun Kang, NaRe Lim
 Coordinator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Seoul Art Space Seogyo)
 SoHyun Bae, RyeoJin Lee, SiWoo Lim(Seoul Art Space Seogyo)
 Presenter YoonHa Kim, MinJi Ma, Sisterhat, Eugene Mok, BoRyeon Choi, SunYoung Choi
 Copy Editor Eunki Kim
 Translator Eun Young Cho
 Designer JiYun Kang
 Print K&C GARAM Ltd.
 Hosted by Seoul Art Space Seogyo(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Organized by The Artists Cooperative Group(Seoul Art Space Seogyo)
 Publisher Chulhwan Joo
 Publish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33

SEOUL ART SPACE SEOGYO
33 6-gil, Jandari-ro, Mapo-gu, Seoul, Korea

T. +82 2 333 0246

Website cafe.naver.com/seoulartspace
Facebook @ seogyo.center, @ sg4everyone
Twitter @ seogyo
Instagram @ seogyo.cente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ISBN 979-11-86489-14-7 (전2권)
ISBN 979-11-86489-15-4 94600

오른쪽
시공
KHA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